*영어어문교육 9*권 1호 2003년 여름

와세다대학교-강원대학교 원격수업을 위한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수업 모형개발*

박 경 자
(고려대학교)

Park, Kyung-Ja (2003). The role of CCDL in the EFL classroom.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9*(1), 83-129.

This study explains a cooperative project betwee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NU) and Waseda University(WU), so called CCDLP (Cross-Cultural Distance Learning Project).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enhance the English proficiency of students at both universities by making their learning environments enjoyable and fruitfu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hasize the role of CCDL in the EFL classroom by discussing (1) how to create the situations where students at both universities get to know and understand each other through modern technologies, (2) how to encourage the students to work closely together VC (Video Conferencing), TeleMeet, chat systems, and e-mail, and (3) how to provide a new style of learning and teaching L2. The results from a questionnaire and a grammaticality judgment test show that students have a sense of satisfaction and achievement in the English proficiency at the end of the project. The result of this project will be of great importance for future works in the use of communication systems in L2 learning and teaching.

[CCDL/grammaticality judgment/new style of learning and teaching L2, 국가간 원거리 학습/문법성 판단/새로운 방법의 L2 학습과 교수]

---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수 국내교류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This paper was accomplished with research fund provided by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support for 2002 Domestic Faculty Exchange. 자료정리와 분석에 도움을 준 신정화양과 박민경양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Ⅰ. 서 론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작용(interaction)이 언어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ong 1990, 1996; Snow 1994; Braidi 1995 등). 특히, 최근에 제 2언어(L2) 습득과 학습에서 언어 환경의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연구가 대두되면서 언어교육에서 상호작용과 문제 해결의 경우 학습자가 취하는 의사소통 전략에 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Long 1996; Yule & Tarone 1997; Poulisse 1997; Wilkes-Gibbs 1997; Williams, Inscoe, & Tasker 1997; Wagner & Firth 1999; Nobuko 2001).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NS(Native Speakers)와 NNS (Nonnative Speakers)간의 상호작용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나 1980년대 이후 언어적 환경과 언어입력에 의해서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입력에 대한 학습자의 선택적 의식과 인식이 언어습득/학습에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Long 1981,1983). 즉, 학습자는 언어입력 모두를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입력 중에 선택적으로 자신이 주의력을 집중하여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인식된 요소를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인식과 집중이 언어학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L2습득에서의 언어입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1) 사회언어학적 양상 - 주로 NS 와 NNS간의 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언어적 차이를 규명하는 것과 NNS에 맞게 NS의 말을 조절하는 것이 언어습득과 이해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관한 것, (2) 심리언어학적 양상 -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학습자 중심의 조절된 언어입력의 역할과 특성이 언어습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3) Foreigner Talk(FT)[1] 양상 - 생략, 확장 그리고 재배치와 대치라는 FT의 단순화과정에 대한 면- 을 다루어왔다(Williams 1992). 특히 언어조정문제로는 NS와 NNS간의 발화특성과 상호조정관계에서의 특징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의미이해가 어렵거나 대화나 과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미협상을 통하여 대화를 수정하거나 의사소통책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의미협상을 통한 대화수정과 의사소통책략을 통한 문제해결은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L2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

1) 응용언어학 사전(2001, p.174)에 의하면 foreigner talk(외국인에게 하는 말투)란 목표언어에 능숙하지 못한 외국인들에게 원어민 화자가 사용하는 유형의 말을 말한다. 외국인에게 하는 말투는 (1) 종종 과장된 발음을 수반하며 보통 말보다 더 느리고 크고, (2) 관사, 기능어, 굴절 등은 생략되고 복잡한 동사의 형태로 대치되는 등 쉬운 어휘와 문법을 사용하며, (3) 주제가 종종 반복되거나 문장의 앞으로 이동되는 등의 특징을 갖는다. 원어민 화자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는 유형의 말이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용한다.

이제까지의 상호작용, 의미협상을 통한 대화수정과 의사소통책략에 관한 문헌조사 결과 NS와 NNS간의 상호작용이 집중적 주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NS와 NNS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한 이유로는 (1) NNS의 궁극적 목표가 NS이라는 점, (2) NS와 같이 되기 위하여서는 NS로부터의 지속적인 피드백과 지지를 NNS가 필요로 한다는 점, (3) NNS의 중간언어가 화석화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NS의 즉각적 교정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나, NNS와 NNS간의 상호작용이 영어학습- 특히, 문법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1) 정의적인 면(affective filter), (2) 학습자의 자신감, 만족감 그리고 동기유발(learner's motivation), (3) 입력조정, 피드백 현상, 그리고 출력조정과 문제해결중심의 수업진행과정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의 기본 자료는 2002학년도 제 2학기 강원대학교 ***"영문의 이해"*** 강좌 수강생들이 제출한 (1) 수업진행과정에서 요구된 자료, (2) 설문지 결과, (3) 와세다대학 파트너와의 채팅자료, (3) 영어 프리젠테이션 자료(중간고사), (4) 기말고사, 그리고 (5) 문법성 판단에 관한 사전. 사후 test 결과 중에서 (2)과 (5)를 중심으로 한다. 나머지 자료인 (1)과 (4)는 잉여적인 자료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NNS간의 상호작용이 NS와 NNS간의 상호작용에 못지 않게 영어습득/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NNS(한국과 일본 학생)간의 실제 채팅자료와 설문지, 그리고 문법성 판단에 관한 사전, 사후 시험을 통하여 증명하는데 있다.

I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Chomsky(1965)에 의하면 인간은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갖고 태어난다고 한다. 한마디로 인간의 언어능력은 유전적이라는 것이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언어를 습득/학습하고 언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까닭은 인간만이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지식이란 언어체계에 대한 내재적 지식을 말한다. 내재적 언어지식이란 언어의 체계 - 언어의 구성지식으로 형태소, 음운규칙, 어휘, 문법 등 -를 말한다. 동물의 경우 인간이 지닌 내재적 언어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만약, 내재적 언어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언어를 매개로 한 인간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내재적 지식만으로는 의사소통을 직접 할 수는 없다. 내재적 지식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여야만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지식이 구체적, 가시적으로 구현된 것이 언어수행(linguistic performance)이며 의사소통은 바로 언어수행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서는 언어지식과 그 지식을 실제 생활에 적절하게 적용하여 사용하기 위한 발견적 학습법(heuristics)이 필요하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있는 대화자들의 상호작용(interactions)이 매우 중요하다.

상호작용이란 대화자들이 대화하는 동안에 서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으로 화제를 말하는 단계(transaction), 발화[2]연속체(exchange), 이동(move), 화행(act)을 총칭하는 말로서 담화의 최상단위이다(Sinclair & Coulthard, 1975). 언어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은 그 목적을 주로 의사소통에 둔다.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학습자는 나름대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 대화 문맥 내에서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해석하며, 대화의 목적에 따라서 의미를 타협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상호작용이란 대화자가 대화하는 중 타인(예를 들면, 대화상대자)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상호적이고 대인적인 활동을 말한다. 상호작용 행동이란 담화 상 발화의 구조적 기능면에서 고려되는 발화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대화가 시작되거나, 마감되거나 또는 계속,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상호작용(interaction)이란 작용과 반작용이 교차되면서 정보가 교환되는 방식인데, 다시 말하면 사용자가 명령어를 전달하면 컴퓨터는 이러한 명령어에 대한 작업처리결과를 알려주고, 사용자는 다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에 처리할 작업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즉, 한 방향으로 정보의 흐름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으로 정보의 흐름이 조절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은 대화라고도 볼 수 있다.[3]

담화 분석 면에서 볼 때 상호작용은 담화분석의 최상구조단위이고 화행(act)은 최소구조단위이다(interaction -> transaction -> exchange -> move -> act). 따라서 상호작용이란 화행, 대화이동, 발화연속체, 그리고 단계를 거친 매우 포괄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사나 헤어짐은 상호작용이 발생한 시작과 끝을 말한다.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작용(interaction)이 언어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최근 연구경향은 언어 환경이 제 2언어(L2) 습득과 학습에 미치는 중요성과 그 역할, 언어교육에서 상호작용과 문제해결의 경우 학습자가 어떠한 의사소통 전략을 취하는 것이 언어습득을 촉진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Long 1996; Yule & Tarone 1997; Poulisse 1997; Wilkes-Gibbs 1997; Williams, Inscoe, & Tasker 1997; Wagner & Firth 1999; Nobuko 2001).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주로 NS(Native Speakers)와 NNS(Nonnative Speakers)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주로 대상이 되어 왔고 1980년대 이후 언어입력에 대한 학습자의 선택적 주의집중과 인식이 언어습득/학습에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Long 1981, 1983). 즉, 학습자는 언어입력 모두를 다

---

2) 발화는 담화에서 사용되는 단위이다. 보통 말하는 사람이 한 번 말하기 시작하여 특정 주제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을 멈춘다는 표시를 할 때까지를 하나의 발화로 생각한다. 따라서 발화는 구, 문장, 또는 여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단락을 의미할 수도 있다.

3) 박경자 외. ***응용언어학사전***. 경진문화사. 2001. p.222.

받아들이지 않고 선택적으로 자신이 주의력을 집중하여 인식하는 입력만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주의력 집중과 인식이 언어학습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 것은 상호작용의 대상이 누구이던지 다 적용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NS와의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여 NNS가 NS의 모든 것을 다 입력으로 받아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만을 받아드리게 된다는 것이다. 아동의 모국어 습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아동들이 성인의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규칙에 따라서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고, 결코 모방으로 언어습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그리고 언어학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다 많이 수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 의사전달 역할을 위한 가능한 모든 자료를 동원하는 것이 언어학습에 중요하다(박경자 1991, 제 5장)는 관점을 우리가 받아드린다면, 비 원어민화자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상호작용도 NS와 NNS간의 상호작용에 버금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L2습득에서의 언어입력에 관한 연구는 주로 NS 와 NNS를 대상으로 하여 NS와 NNS의 차이와 조정, 학습자 중심으로 조절된 언어입력의 역할과 특성이 언어습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Foreigner Talk(FT) 양상을 주로 다루었다(Williams 1992). 특히 언어조정문제로는 NS와 NNS간의 발화특성과 상호조정관계에서의 특징이 주로 다루어졌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의미이해가 어렵거나 대화나 과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의미협상을 통하여 대화를 수정하거나 의사소통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 의미협상을 하고 있는지, NS와 NNS의 의미협상 전략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의미협상을 통한 대화수정과 의사소통전략을 통한 문제해결은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를 L2로 사용하는 나라에서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상호작용, 의미협상을 통한 대화수정과 의사소통전략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 대상을 NS와 NNS에 국한 시켜왔다. 그 주된 이유는 NNS가 목표로 삼고 있는 사람이 NS임으로, NS로부터의 지속적인 피드백과 수정을 받아야 NNS의 중간언어가 화석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NNS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NNS는 NS로부터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그러나 만일 상호작용이 언어습득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상호작용의 대상이 NS이건 NNS이건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으며 오늘날과 같이 세계영어(global English)의 습득/학습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상호작용의 대상을 미국이나 영국에 제한시킬 이유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NNS와 NNS간의 상호작용이 영어학습- 특히, 세계영어(global English)학습과 습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한국 대학생과 일본 와세다 대학생과의 국가간 원거리 학습 및 채팅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한다.

먼저, 외국어 학습/습득에서는 동기유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이미 증명이 되어 있다 (Gardner & Lambert, 1972). 학습동기유발은 학습자의 자세와 만족감, 그리고 자신감과도 많은 연관이 있다. 학습자가 영어에 대한 높은 학습동기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학습하면 자연적으로 결과도 좋게 되고, 그 결과 만족감과 자신감을 갖게 되어 더욱 더 열심히 학습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학습자에게 높은 학습동기와 영어학습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는가? 필자는 모든 것은 학습자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 넣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학습자의 경우 영어에 대하여 매우 두려운 생각을 갖고 영어로 말할 때 조금만 오류를 범하여도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이러한 생각에서 학습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는 우리나라 모국어가 아니고 외국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원 어민같이 구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시초가 되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구사하는 영어가 원 어민화자와는 다를 수도 있으며 원 어민화자의 영어를 그대로 모방하여야 할 필요도 없으며, 비원어민화자의 다양성을 원 어민들도 인정하고 받아드려야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연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로 노력을 하여 영어를 학습하고 원어민화자의 말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또한, 학습하는 과정을 즐겁고 재미있게 교사는 이끌어주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자를 지도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물론 학습자에게 여러 가지의 보상을 주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보상의 경우 도구적인 보상뿐만이 아니라 통합적인 보상도 필요하다.[4] 학습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으면서 학습하는 경우 스스로 만족감과 자신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어 습관적으로 되면 스스로 문제해결을 하려고 더욱 더 노력을 하게 되고 그 결과 더욱 더 자신감과 즐거움을 학습과정에서 얻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학습과정을 고대하고 기다리게 될 것이다.

---

4) 동기란 제 2언어를 학습하려는 욕망과 필요성의 결과로 제 2언어학습에 투여하는 학습자의 노력을 말한다. 제 2언어학습에서 학습자는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동기로 인하여 학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Gardner & Lambert (1972)에 의하면 도구적 동기(instrumental motivation)와 통합적 동기(integrative motivation)의 두 가지 동기를 제시한다. 전자는 학습자가 직장을 구해야 한다든지 시험에 합격하여야한다는 등의 기능적 목표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학습자가 목표언어집단문화와 동일시되기를 원하는 경우, 즉, 목표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그 언어를 학습하려고 할 때 발생한다. 그 외에도 동기를 (1) 과업동기 -task motivation- 또는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이라고 하여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는 흥미로 인한 동기, (2) 마키아벨리 동기 -Machiavellian motivation-, 즉, 목표언어 구사하는 사람들을 정복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언어를 학습하려는 동기, 그리고 (3) 결과적 동기 -resultative motivation-, 즉, 외국어나 제2언어 학습 성공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동기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동기란 학습목적과 학습과업수행결과를 근거로 하여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동기유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정의적인 면(affective filter)이다.[5] 성공적인 제 2언어학습은 학습자의 감정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는데, 자신감의 결여, 동기결여, 불안감 등 부정적 태도는 학습과정에 여과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학습자로 하여금 입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언어학습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 방해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의 정의적인 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학습자의 동기유발, 정의적인 면과 함께 성공적인 제 2언어학습에 필요한 것이 입력과 입력조정, 피드백 현상, 그리고 출력조정과 협상과정을 통한 문제해결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성공적인 제 2언어학습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입력에 접하게 될 때 가능하며 최상의 입력조건이란 다름 아닌 학습자가 이해 가능한 입력을 말하는 것으로 (1) 학습자에게 흥미 있고 연관성이 있는 것, (2) 문법적으로 순서나 등급이 정해진 것이 아니어야 하고, (3) 양적으로 충분하고 여과정도에서 학습자가 자기 방어기제를 낮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4) 학습자가 대화사용에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5) 학습자의 현재 언어능력인 현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언어입력을 말한다(Krashen, 1982).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학습자가 입력을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1) 입력을 보다 단순화시키는 것, (2) 문맥의 도움을 근거로 하는 것, 그리고 (3) 학습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잘 못 이해하는 것을 협상과정을 통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박경자 외, 2001). 그러나 이해 가능한 입력이 제 2언어 습득에 필수조건이라는 Krashen의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은 이해 가능한 입력이라고 하여 모든 입력을 전부 다 인식하고 의식하여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Gass, 1997). 학습자들이 받아드리는 입력(intake)이란 사실, 학습자들이 이미 얻은 지식이나 경험을 근거로 지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여 주의를 기울여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 것이야 말로 학습자에게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받아드리는 입력(intake)은 실은 이해된 입력(comprehended input= intake)으로써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sible input)과는 (1) 이해가능성을 통제하는 주체와 (2) 이해라는 개념의 특성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통제주체는 이해 가능한 입력의 경우 화자인데 반하여 이해된 입력

---

5) 감정적인 양상이 언어학습에 중요하다는 주장은 감정여과가설을 주장한 Krashen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다. 학습자의 감정상태는 불안, 걱정, 경쟁심, 욕망, 학습자가 발전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학습자의 감정상태는 제 2언어습득의 속도와 궁극적인 달성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되며 학습자의 성공적인 제 2언어 학습은 학습자의 감정에 근거한다는 주장이 감정여과가설이다.

에서는 학습자 또는 청자가 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이해라는 개념의 특징은 이해 가능한 입력의 경우 이분법에 의하여 이해되거나 또는 이해되지 않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이다. 반면에 이해된 입력의 경우 이해라는 개념은 넓은 의미의 이해를 언급하는 것으로 의미론에서부터 자세한 구조적 분석에 이르기까지의 가능성의 연속성을 말한다 (Gass, 1997).

학습자가 접하게 되는 입력이외에 학습자 행동의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정보인 피드백(feedback) 역시 성공적인 학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화할 때 청자는 화자가 하는 말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청자에게 화자가 제공하는 신호로서 말 또는 표정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말 또는 표정 등의 신호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피드백을 담화분석에서는 청자반응단서(back channel cue)라고 하며 uh, yeah, really, 미소, 머리 흔들기, 투덜거림 등이 여기에 속한다(박경자 외, 2001).

언어습득에서 피드백이란 학습자의 중간언어조정에 사용할 수 있는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정보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가설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로 후자는 부정적 증거를 의미한다. 학습자가 생산하는 언어인 출력 또한 성공적인 제 2언어학습에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가 출력을 이해 가능하게 하도록 노력할 때 학습이 촉진된다(Swain, 1985). 학습자가 생산하는 언어인 출력은 대화 대상자들에게 이해가능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언어출력이 상대방에게 이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해 가능한 언어출력을 얻도록 대화자간의 타협이 이루어지게 된다.

대화참여자들의 (1) 의사소통욕구가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며, (2)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학습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며, (3) 언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학습자가 생각하는 경우 비언어적 방법을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력과 피드백, 그리고 출력 면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성공적인 제 2언어습득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2002학년도 제 2학기 강원대학교 ***"영문의 이해"*** 강좌 수강생들이 제출한 (1) 설문지 결과, (2) 와세다 대학 파트너와의 채팅자료, 그리고 (3) 문법성 판단에 관한 사전, 사후 시험 결과 등의 기본 자료를 근거로 NNS(한국과 일본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NS와 NNS간의 상호작용에 못지않게 영어습득/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소통욕구가 언어발달을 촉진시킨다면, 의사소통욕구가 발생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중심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교실수업모형을 최대로 하는 것이 도움

이 된다.

2.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학습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의 노력을 한다. 따라서 비원어민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채팅)도 원 어민 대 비 원어민간의 상호작용 못지않게 언어 발달에 중요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3. 언어적으로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학습자는 특정한 전략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을 유지하려고 한다. 비언어적 방법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화제를 바꾸는 등의 특정 전략을 사용한다.

III.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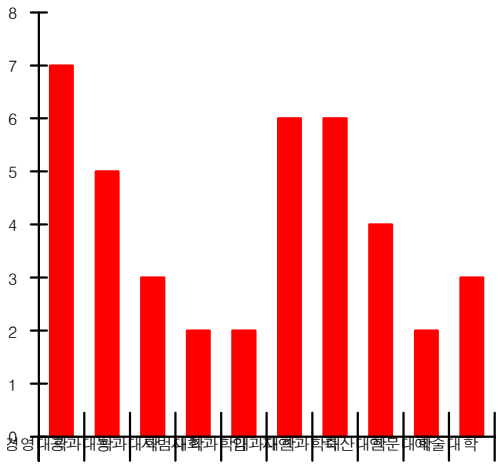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점인 상호작용중심의 수업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본 자료가 되는 2002학년도 제 2학기 강원대학교 “영문의 이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문법성 판단 시험을 근거로 (1) 학습자의 배경, (2) 강의개요와 수업진행 과정에 관한 구체적 기술, (3) 일본 파트너와의 채팅 방법 제시, (4) 학습자들의 채팅 결과와 실험 전. 후의 시험결과를 기준으로 학습자의 영어구사력과 지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1. 학습자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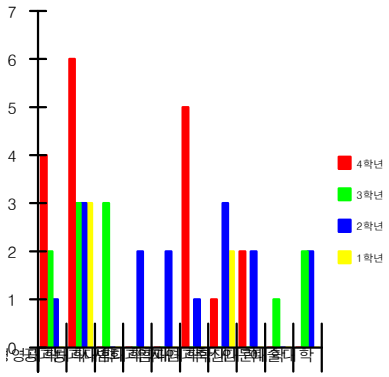
연구대상은 2002학년도 제 2학기 강원대학교 “영문의 이해” 수강생 약 50여명이다. “영문의 이해”는 교양과목으로 영어독해와 관련된 과목으로 강의내용, 교재선택, 강의방법 등에 관하여 강사의 재량권이 부여된 과목이다. 이제까지는 이 과목은 주로 한 가지 텍스트를 정하여 교실수업에서 독해하는 것이 주였다고 한다. 따라서 수강자는 영문학과 학생에 제한되지 않고 영어학습을 원하는 모든 학과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수업시간은 일주일에 두 시간으로 2002학년도 제 2학기에는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로 되어있다.

수강자는 첫 시간에 약 50여명이 등록하였으나 실제로 2002년 9월 3일 화요일, 실험 전 테스트에 참가한 학생수은 약 44명이었다. 아마도 강의계획진도표나 첫 시간 수업을 듣고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수강을 취소한 학생도 있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영문의 이해* 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의 대학별, 학년별, 성별로 학생수와 비율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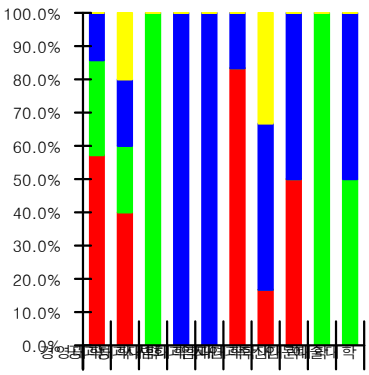
(1) 대학별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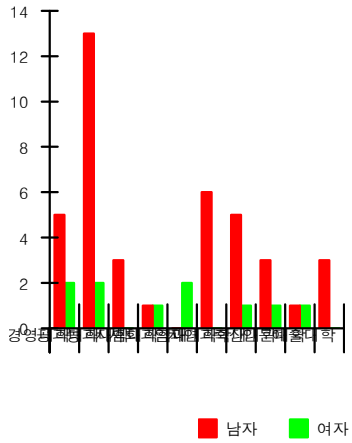
(2) 학년별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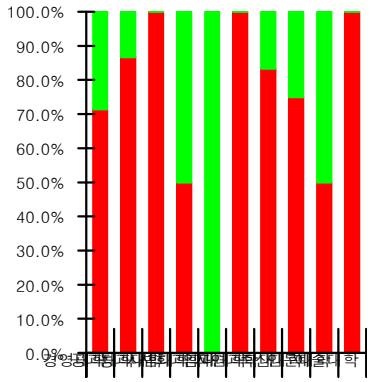
(3) 학년별 학생비



(4) 대학별 성별 수



(5) 대학별 성별 비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영문의 이해* 수강학생 학년으로는 4학년학생이 전체의 약 40%, 3학년학생이 20%, 2학년학생이 30%, 그리고 1학년학생이 약 10 %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과대학별로는 공과대학학생들이 전체학생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영문의 이해*라는 과목이 비록 선택교양과목으로 1학년 때 수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졸업반이 될 때까지 사정상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재수강, 삼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또한 수강생들이 영어에 흥미를 별로 느끼지 못 하였건, 동기유발이 안 되었건 간에 높은 영어 능숙도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수강자의 배경과 영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강의 첫 시간에 수강자에게 설문지(부록 2)를 통하여 영어에 대한 자가진단, 태도, 경험, 수강과목, 수강자의 배경, 세계영어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등을 첫 수업시간에 조사하였다. 첫 수업시간에 조사한 설문지에 국가 간 원거리 영어학습에 관한 항목(효과, 실제적인 장점과 단점 등 포함)을 첨가한 설문지를 학기 말에 다시 수강생들에게 제시하고 의견을 수합하였다. 총 33명이 응답한 설문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령, 성별 그리고 계열별로는 아무런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영어에 대한 학습자의 배경조사결과, *영문의 이해* 수강생 대부분은 (1)중학교에서 문법 독해방식으로 영어학습을 시작하였고, (2)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거의 대부분

(85%) 없으며, (3)학원에서 영어학습을 한 경험이 있고(65%), (4) 영어학습에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하루에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대부분 1시간 미만이었으나 (5) 영어학습의 필요성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수강생 (85%)이 원어민 친구가 없었고, 영 미인에 대한 호감도는 약 45%정도의 수강생들이 호감을 표시하였다. 어려운 영어기능의 순서로는, 말하기-> 듣기-> 읽기와 쓰기의 순서라고 학기 초 설문에서 응답하였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의 순서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다양한 세계영어에 대하여서는 미국영어-> 영국영어-> 캐나다영어-> 호주영어-> 뉴질랜드영어-> 스위스영어 -> 싱가폴영어-> 홍콩영어 -> 인도영어 등의 순서로 자신이 좋은 영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을 학기 초 설문에서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학기 초에 수강생들이 갖는 영어학습에 대한 자세는 매우 부정적이었고 동기유발 또한 매우 부진한 상태였다.

2. 문법성 판단 시험

수강자의 영어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와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학생들에게 부과하였던 것과 동일한 40문항의 *문법성 판단 시험*(Ellis, 1991)을 실험 전, 후로 실시하였다. *문법성 판단 시험*은 Ellis(1991)의 시험을 모방한 것으로 전부 40개의 문장(4개의 문법적 문장과 16개의 비문법적 문장으로 구성(부록 3))되어있다.

문법성 판단 시험 40문항은 모두 5가지 유형(각 유형 8문장)으로 구성되어있다. 동사를 기준으로 하여 (1)과 (2)에서처럼 NP NP 와 NP PP 의 두 가지 유형이 모두 가능한 문장, (3) (4)에서처럼, NP PP만을 받아드리는 동사와 (5) 수동형 구문으로 된 문장의 5가지 유형으로 되어있는데 문제는 학습자들이 동사를 제대로 하위범주화하고 있는지이다.[6] 제시된 동사는 *send, offer, buy, reserve, report, explain, open,* 그리고 *design* 등 모두 8가지이며 이들 동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

6) Chomsky(1964)의 하위범주는 정밀 또는 표준 하위범주규칙(strict sub-categorization rule)과 선택자질(selectional restriction)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밀 또는 표준 하위범주규칙의 특징은 자매범주(sister category)와 + 기호를 사용하여 기술하는데 반하여 선택자질은 문법적 범주에 근거하여 기술하지 않고 의미자질로 기술하고 자매범주에 제한되지 않고 - 부호로 기술한다는 점에서 정밀 또는 표준하위범주규칙과 대조된다. 예를 들어, attack 라는 동사의 정밀 또는 표준하위범주규칙에 의하면, 동사 attack는 attack $[\ _{+\ NP}^{+\ V}\ ]$ 로 기술되고, 선택자질에 의하면, attack $[\ +[+\deg ree]\ ]$ 로 시술된다. 동사 attack의 선택자질에 의하면, 정도부사와 함께 사용되지 않고, 주어는 반드시 생명체라야 한다 (박경자, 1991. 42).

1) NP NP와 NP PP(전치사 to)가 허용되는 동사 (send, offer)
2) NP NP와 NP PP(전치사 for)가 허용되는 동사 (buy, reserve)
3) NP PP(전치사 to)만 허용되는 동사(report, explain)
4) NP PP(전치사 for)만 허용되는 동사(open, design)
5) 수동태의 구문(제시된 8개의 수동구문은 모두 비문임)

문법성 판단시험에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모국어인 한국어에 전치사가 없고 후치사가 사용됨으로 인하여 NP NP 형태의 문장보다는 NP PP 형태의 문장을 정문이라고 생각하고 NP NP 와 NP PP의 두 가지 형태 모두를 문법적인 문장으로 간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가정할 수 있다.
(2) 수강자들이 전치사 사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즉, to 와 for 사용의 혼돈,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3) 수강자들은 수동문의 경우 어려움을 많이 느낄 것이라고 가정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서 수동문의 규칙은 영어수동문의 규칙과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경우 수동 형태소를 사용하여 수동문을 구성할 수 있다(Sohn, 1986).

3. 강의 내용

본인은 2002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내대학교수 교류연구비지원으로 강원대학교에서 1년간 강의를 하게 되었다. 강원대학교는 고려대학교와 함께 와세다 대학교와의 원격수업(Cross-cultural Distance Learning)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서 본인은 2002학년도 제 2학기 *영문의 이해* 강좌를 강원대학교에서 2002년도 2학기에 담당하게 되었다. 이 강좌의 목표가 독해에 있음으로 본인은 강의의 목표를 (1) 선택된 영어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독해와 더불어 말하기, 쓰기 능력과 (2) 와세다 대학교 학생들과의 채팅(chatting)을 통하여 주어진 주제에 대한 토의능력의 향상으로 하였다.

내용이해와 더불어 말하기, 듣기, 그리고 쓰기 능력의 향상과 정해진 주제에 대한 토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강의에서 어떤 자료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강의내용과 강의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강의내용선정에 있어서는 고려대학교에서의 경험을 근거로 수강생들(비슷한 연령층임으로)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자료를 신문, 잡지, 기타 다양한 출처를 통하여 수집하여 수강생들에게 첫 시간에 handout으로 나누어주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읽고 싶어 하는지 물어서 결정하고 수강생들이 특히 읽고 싶은 자료가 있으면 복사하여 수업시간에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수집 자료의 근거는 (1) 수강자들의 흥미, (2) 시기적 적절성(최근의 사회적 쟁점에 관한 것), (3) 내용의 건전성, (4) 교육적인 적절성,

그리고 (5) 지루하지 않은 재미있는 내용으로 세계화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하였다. 이러한 자료는 가깝게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에서부터 외국이나 특정집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물론 학교에 미리 제출하게 되어있는 강의계획표에 매주 읽어야 할 자료를 미리 기재하기는 하였지만 수강생들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학교수업을 학습자들이 주체가 되어 이끌어간다는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또한 학습자들의 의사를 최대로 존중함으로서 학습자들의 동기유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수강생들은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김치에 관한 자료를 처음 읽기를 원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수업이 시작되었다. 처음 자료선정에서부터 학습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고 학습자 중심으로, 와세다 대학생과의 채팅을 통해, 상호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업을 한 학기하면 아마도 학습자 입장에서 영어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만족감과 자신감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어서 그 결과 영어 능숙도가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

4. 강의진행과정

강의는 강의계획표에 따라서 진행되었다(부록 1 참조). 강의계획표의 진도는 수강생의 수준과 학습목표, 수업 시수, 그리고 어느 정도의 상호작용에 필요한 적절한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음으로 짜임새나 강의 운영 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하였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강의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동기유발을 위한 활동

학습자들의 동기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강의를 가능한 한 재미있고 활기차게 그리고 학습자들이 많은 활동을 수업 시간 중에 거리낌 없이 주도 할 수 있도록 학습자 활동을 강조하였다.

강의는 강의계획표에 의거하여 진행되었으나 수강생들로 하여금 (1) 강의진행이나 내용 등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 많은 일을 먼저 집단으로 하다가 차후에 독립적으로 하도록 학습자들을 인도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강좌와는 차별이 된다고 생각한다.

강의 첫날 수강생들에게 영어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외국어로서의 영어와 제 2언어로서의 영어학습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세계영어(Global English)와 세계지방화영어(Glocalized English)에 대한 설명을 재미있는 일화를 예로 들어서 가능한 한 많이 이야기해 주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여행을 하기 위한 비자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영사와 파키스탄 부부사이에 진행되었다:

영사: How old are you?
*부부: I am **dirty** and my wife **dirty**, too.*

위의 예에서 파키스탄부부는 ***thirty***라는 단어를 ***dirty***로 발음하고 있는데도 스위스 영사가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따라서 비자취득에도 문제가 없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파키스탄 부부도 그렇게 발음하는데 대하여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영어가 외국어나 제 2언어로 사용되는 여러 나라에서 영어학습자들이 영어가 모국어로 사용되는 영국 사람이나 미국사람들의 발음을 모방하여 동일하게 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음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영어가 어떤 한 나라의 국어로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세계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 원어민도 세계영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재미있는 일화나 이야기를 많이 좋아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서는 흥미를 느끼게 되고 따라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학습자들의 동기유발과 주의력 집중을 위하여 영어에 관련된 일화를 시간 중에 들려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수동적인 학생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강좌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학습도중의 어려움, 기타 개인적인 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원하는 경우 본인의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하도록 하였다(http://www.korea.ac.kr/~kjpark; kukjpark@korea.ac.kr; kukjpark@hanmail.net). 강좌를 위한 다움카페(http://cafe.daum..net/LovingKang 도 학생들 스스로 개설하여 ***영문의 이해*** 강좌에 관한 모든 것을 올리고 담당교수와 학생, 학생들 상호간의 사이버 상호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 강의진행절차

CCDL 참여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오리엔테이션(orientation) 실시 (약 30분간 원격으로 고대 CCDL팀 조교가 실시하고 질의 응답함. 내용은 CUSeeMe 사용법으로 CCDL 홈페이지(homepage)를 통하여 로그인(log in)하고 채팅(chatting)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2) 각자 프로필(profile)작성에 필요한 사항(영문이름, 출생순서, 취미, 자기소개 등)을 준비하여 직접 올리도록 함. 개인 프로필(personal profile)등록. 사진이 자동으로 up-load됨.
(3) 채팅(chatting) 가능한 시간과 자신의 이메일 주소(e-mail address)제출
(4) CCDL 홈페이지(Homepage)사용법과 더불어 담당교수 홈페이지에 과제물 올리기, 질문하기, 그리고 필요한 정보 찾기 사용법 실제 시연
(5) 각자 파트너와의 채팅 스케줄(chatting schedule)이 일본 측으로부터 오고 난 후에는 각자의 전자우편 번호로 채팅(chatting)일정을 예약, 조정하고 의견 교환 가능

(6) 채팅(chatting)은 복합매체 교육실(Multi-Media Education Lab.)에 와서 communication system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채팅(chatting)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서 미리 예약하고 다른 장소에서도 텍스트 채팅(text chatting) 가능(반드시 시간과 자신이 속한 그룹 번호를 정확히 찾아서 채팅(chatting) 할 것).
(7) 일주일마다 합의된 주제(topic)로 채팅(chatting)한 결과를 'My Notebook'에 올림. 질문은 담당교수의 홈페이지나 CCDL의 홈페이지(Homepage)에 올린다 (담당교수나 조교가 학생들의 질문에 대하여 피드백을 남겨줌으로서 동기유발에 도움을 준다.)
(8) 일 개월에 1~2회 정도 화상수업과 논의를 함. 보통 약 1~2시간 이내. 과거에는 전화선을 사용하였으나 2001년도 2학기부터는 ISDN선 사용함으로 경제적임.
(9) 2001년 9월 와세다(Waseda)대학에서 기증한 Polycom(View Station SP) 사용함. 그러나 녹화기능이 없어서 수업내용의 기록이 어렵고 불편함. Polycom View Station 128 (Dual monitor기능, PSTN을 통하여 제 3자 통화가능, 보조 마이크 포함) 필요함.
(10) CCDL 참여자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 다음 학기에 반영함.

국가간 원거리 수업교실은 강원대와 와세다대학 간의 원거리 학습(앞으로 CCDL)을 위해 지금까지 약 3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주로 정규 수업에 첨가되는 채팅 중심이었다. 필자가 2002학년도 제 2학기에 담당한 "영문의 이해"도 교양 선택과목으로 영어 독해 중심으로 이제까지 강의되어 왔던 과목이다.

"영문의 이해" 과목을 국가 간 원거리 수업에 적용하기 위하여 필자는 이 과목의 내용선택을 앞서 언급하였듯이 매우 신중히 하였다. 실제로 수업시간(2시간)의 강의진행은 다음과 같다:

(1) 수업시작(전 시간 요약/간단한 인사 또는 일화)
(2) 먼저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간략히 학생들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고 어렵게 느끼거나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어휘, 표현, 문장, 단락 등)을 말하게 한다. 학생들을 약 5~6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의 대표를 두어 집단토의를 우선 한 10분~15분 정도 하게 한다. 집단토의 도중 각 구성원은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을 나름대로 적어서 각 집단에서 토의하고 학급 발표와 토의에 참여할 때 참고하고 매시간 집단과 개인의 의견과 의문사항을 적어서 제출하게 한다.
(3) 일단 집단토의가 끝나면 교사는 각 집단이나 개인에게 이해가 안 가는 어휘나 표현 또는 문구를 말하도록 하고 그 것을 칠판에 적게 한다. 모든 집단과 개인의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제시된 다음 교사는 각각의 문제점에 대한 학급의 견해를 묻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습자들에게 단서가 되는 질문을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어휘, 어구, 표현 등에 대한 논의가 대강 끝나면 독해에

들어간다.

(4) 독해하는 경우도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락의 내용을 집단이나 개인에게 교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하여 학생들이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충실히 이해하도록 도움을 준다.

(5) 텍스트를 같이 논의하면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다음시간까지 준비해오도록 과제를 준다. 예를 들면, 텍스트 중에 Betty Crocker라는 사람이름이 나오는 경우 어떤 사람이며 이 텍스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연구하라고 과제물로 내어주고 다음 시간에 과제물에 대하여 준비해온 학생들의 발표를 듣는다. 이런 방식으로 내용과 영어 학습을 연관지어서 학습하도록 유도한다.

(6) 텍스트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함께 학습한 후에 학습한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만들도록 학생들에게 요청한다. 그리고 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그에 대한 토의를 유도한다. 이 경우 일본학생과 우리나라 학생들 간의 문화적인 차이와 견해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학습하게 한다. 또한 텍스트 내용이 미묘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경우(예를 들어, 역사교과서나, 위안부 문제 등)에는, 어떻게 하면 일본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사실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7) 채팅(Chatting) 또한 수업시간에 논의한 주제에 관하여 계속하도록 권장하되 학생들이 다른 주제를 원하는 경우 그렇게 하도록 재량권을 주어서 자유롭게, 그리고 즐겁게 대화하고 대화를 통하여 서로 학습하도록 한다.

(8) 일주일에 한번씩 자신이 상대방과 대화하고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300자 - 1000자 정도) 홈페이지의 'My Notebook'에 올리게 하고 교사가 이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 학습자들끼리도 서로서로 피드백을 줄 수 있다.

(9) 평가는 토의참가, 제출된 과제물의 질, 보고서의 질, 그리고 기말 시험으로 한다. 기말시험은 발표와 필기시험(written test)로 한다.

(10) 기말시험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7]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점을 보완

---

7) 설문지 내용는 다음과 같다:
1. 나는 와세다 대학과의 원거리 학습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예, 아니오).
   * (아니오)를 택한 사람은 9번으로 가십시오.
2. 채팅을 이용한 화상 대화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3. 자신이 주로 대화한 주제는(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세요)?
4. 자신이 대화한 일본 학생들의 영어 수준은?
5. 와세다 대학(일본) 학생들과 영어로 대화를 했을 때, 유익했던 점은?
6. 원거리 학습을 통해 자신의 영어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7. 도움이 되었다면, 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8. 지난 학기처럼 1대 1(개인별) 시간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생각은? 또는 건의 사항이 있다면?

하고 다음 학기를 위한 지침으로 사용한다.

(11) CCDL 수업방식의 핵심은 학습자간(비원어민화자 vs. 비원어민화자)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최대로 하도록 학습자들을 고무시키고 무엇보다도 능동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도록, 영어사용을 많이 하게 함으로서 학습자들이 정의적인 면(affective filter)를 낮추고 최적의 입력에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업은 진정한 문화 교류의 장이 됨으로서, 앞으로 양국의 사회를 이끌어나갈 두 학교 학생들이 서로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리포트와 대화 내용을 조사해 보면,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왔던 학생들도 한국 문화와 한국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역사적인 이유로 서로의 문화와 나라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도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점은 CCDL의 좋은 결과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서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영어와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매개체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스스로 통합적 동기를 일으켜 자연스러운 영어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컴퓨터 영어 타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능숙하지 못했는데, 매 학기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에는 영어 타자속도도 빨라졌다는 것도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양국의 문화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다보니, 방학을 이용하여, 서로 서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와세다 대학 프로젝트 참여자 내에서 한국어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한국 학생들도 많은 수가 와세다 대학을 방문했다.

또한 문화권이 다른 비 원어민 화자들이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면서 대화에 참여함으로 영어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자신감을 얻게 되고 서로 서로를 더욱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 보통 영어회화는 원 어민화자와의 대화를 통하여야만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점을 CCDL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대화가 시작되고 계속되는 동안에 비문법적인 오류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1) 어디까지나 구어체회화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2) 학습자간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전에 나타난 오류를 인식하고 수정하여 대화를 하는 예가 종종 있고, (3)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즐겁게 대화를 진행하고,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참여를 기본적으로 유도해 오고 있고, (4) 지도교사의 가르침과 지도아래 수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5) 학교에서 할 수 있는 CUSeeMe나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는 텍스트 채팅(text chatting) 모두 학습자가 스스로 문장을 작성하여 올려야 함으로 학습자의 문장실력과 타자 실력이 현저히 향상될 수 있고, 학습자의 동기유발과 증진 그리고 학습목표달성 측면에서도 CCDL은 많은 장점이 있다. 학생들

---

9. (다시 또는 새로) 원거리 학습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0. 기타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의 화상 채팅을 통해본 구체적 화제는 다음과 같다: 대개 먼저 **자기소개**가 선행된다. 즉 이름, 학년, 전공, 고향을 질의하고 응답하고 난 후 상대방에 관한 확인 또는 질문을 한 후에 구체적인 화제들을 끄집어낸다. 구체적 화제로는 1) 취미생활, 2) 가족소개, 3) 축구이야기, 4) 고향소개, 5) 상대방 국가 방문희망, 6) 여자친구 및 결혼문제, 7) 전통음식, 8) 언어, 9) 전공문제, 10) 기후, 11) 취업, 직업, 12) 장래희망, 13) 학교소개, 14) 월드컵(World Cup) 등 매우 다양하지만 비교적 주변 문제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깊은 토의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 것은 아마도 학생들이 채팅할 때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호작용을 보다 더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인간적으로 보다 더 잘 알고자 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학생들이 제출한 채팅 자료에서 보면 상대방과 교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수강생들은 와세다 대학교 파트너와의 채팅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을 서로 갖게 되고 자연적으로 상대방을 방문하기를 원하게 된다. 한국이나 일본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수강생들은 자신의 경험에 관해 자주 이야기 나눈다. 대학생활, 대학공부, 취업문제, 결혼문제 등에 대하여 서로 비교하기도 한다. 이렇게 양국 학생들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경험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개하려고 노력한다.

수강생들은 또한 영어학습 기간과 경험 그리고 정보도 서로 교환한다. 영어학습의 연장선상에서 개별적인 영미문학작품에 관해 종종 얘기를 나누고 영미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나 현대시, 영화 등을 간략히 소개하기도 하며 문학과 어학 학습상의 어려운 문제점을 제시한다.

수강생들의 채팅 대화 주제로서 2002년 한일 양국에서 개최될 월드컵에는 남녀학생 구별 없이 모두 관심이 높다. 모든 학생들이 월드컵에 관해서 한두 차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호 선수들의 게임과 기량에 대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축구선수이야기들을 주로 한다.

학생들은 자기소개와 더불어 자신들의 취미생활을 함께 이야기한다. 특히 음악과 영화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부분들이 적잖은 듯 하다. 가수와 배우 그리고 음악과 영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견해를 주고받는다.

이외에 **날씨**와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과 응답이 많았다. 학생 개인들의 채팅 내용과 'My Notebook'의 기록을 통해 볼 때 본교 학생들은 학기가 지남에 따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CCDL에 참여하고 여러 문제에 관해 상호 교류하였으며 특히 문화에 대한 양국 학생들의 이해가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미 앞서 밝혀둔 바와 같이 학점과 연계하였다는 방안에 그 원인이 있기도 하지만 해마다 CCDL용 기자재를 자주 점검하고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학생들이 좀 더 쉽고 능률적으로 화상채팅을 진행할 수 있는 편리함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Ⅳ. 연구결과 및 토의

연구결과는 (1) 문법성 판단 시험결과와 (2) 설문조사 결과를 주 근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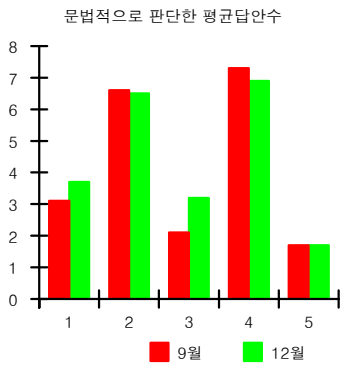
1. 문법성 판단 시험 결과 및 논의

먼저, 조사대상이 되는 다음의 5가지 유형에 관한 문법성 판단 시험 결과를 논의하기로 하자:

1) V NP NP(send, offer, buy, reserve): 정문으로 제시됨.
2) V NP PP(send, offer, buy, reserve): 정문으로 제시됨.
3) V NP NP(report, explain, open, design): 비문으로 제시됨(NP PP이라야 정문)
4) V NP PP(report, explain, open, design): 정문으로 제시됨.
5) 수동구문: 비문으로 제시됨.

따라서 40개 문항 중 비문이 16개 정문이 24개로 제시되었다. 수강생들은 주어진 40개의 문항을 읽고 정, 비문을 구별하고 비문인 경우 정문이라고 생각되는 문장으로 고치는 문법성 판단 시험을 학기 초인 9월과 학기 말인 12월에 치루었다. 문법성 판단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학기 말에 시행된 문법성 판단시험에서는 10개의 문장(수동 구문 (report, open동사이용) 2 문장과 8개의 동사를 포함한 문장)을 다시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문법성을 판단을 하게하였다. 학기 초인 9월과 기말인 12월에 실시한 문법성 판단시험 결과를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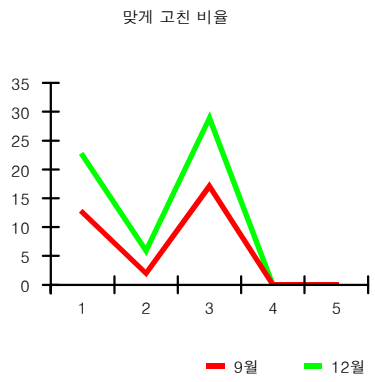
주어진 문장이 정문이라고 응답한 평균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1. V NP NP
   : send, buy, offer, reserve
2. V NP PP
   : send, buy, offer, reserve
3. V NP NP
   : report, explain, open, design
4 .V NP PP
   : report, explain, open, design
5. 수동문

위에서 가로축은 5가지 문장 유형을, 세로축은 각 문장유형의 문제 숫자인 8문제를 의미한다. 먼저, 4번과 2번 유형의 문장이 정문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의 숫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것은 우리가 예상한대로 후치사를 사용하는 한국어의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NP NP도 허용하는 동사로 구성된 문장에 대하여서도 학생들은 NP PP구조를 선호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동구문 형태의 문장에 대하여 학생들은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법성 판단시험 결과 학기 초와 학기 말을 비교하여 볼 때 학생들이 정문이라고 생각하는 문항의 수가 1번과 3번 유형을 제외하고는 별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수업진행 과정과 방법, 그리고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문법성 판단시험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학생들이 비문이라고 생각하고 맞게 수정한 경우와 틀리게 수정하는 경우, 9월과 12월을 비교해 봤을 때 현저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1) 학생들이 비문이라고 생각한 것을 정문으로 고치는 비율이 9월에 비하여 12월에는 매우 높게 나타났고, (2) 틀리게 대답하는 경우가 수동문의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비 원어민 화자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수업방법과 수업내용이 학생들 동기유발에 도움이 되어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설문조사결과 수업시간이외에 달리 특별하게 영어학습을 위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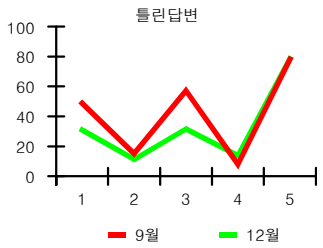
학생들이 비문이라고 대답한 후 답안을 수정하였을 때 그 답안이 정답인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V NP NP
   : send, buy, offer, reserve
2. V NP PP
   : send, buy, offer, reserve
3. V NP NP
   : report, explain, open, design
4. V NP PP
   : report, explain, open, design
5. 수동문

위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9월에 비하여 12월에 실시한 문법성 판단 시험에서 학생들이 비문을 정문으로 수정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비문으로 제시된 3번 유형의 문장 8개에 관한 것이다. 학기 초 17.1%의 학생들이 옳게 수정하였었으나 학기 말에 와서는 약 28.9%의 학생들이 옳게 수정하고, 틀린 답변을 하는 경우는 학기 초 57.2 %에서 학기 말에는 31.6 %로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수동문의 경우(9월과 12월의 문법성 판단 시험결과에 차이가 없음)와 4번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4번 문장의 경우, V NP PP형태만 존재하는 문장이므로, 옳게 수정하는 비율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비문법적이라고 대답하고 문장을 수정했을 때, 수정된 문장이 비문이 되는 비율은 어떠한가? 만약, 학생들이 수정한 문장이 비문이 되는 비율이 학기 초보다 학기 말에 더 많다면 수업진행방법과 내용, 그리고 과정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그래프는 우리의 생각이 기우였음을 보여 준다:



1. V NP NP
   : send, offer, buy, reserve
2. V NP PP
   : send, offer, buy, reserve
3. V NP NP
   : report, explain, open, design
4. V NP PP
   : report, explain, open, design
5. 수동문

유형	9월	12월
1. V NP NP	48.7%	30.9%
2. V NP PP	15.1%	11.2%
3. V NP NP	57.2%	31.6%
4. V NP PP	9.3%	7.9%
5. 수동구문	78.3%	78.3%

먼저, 수동구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형에서 12월 결과가 9월 결과보다 상당히 낮아졌음을 살펴 볼 수 있다. 학생들이 비문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실제 수정할 때 틀리게 고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은 옳게 고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문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하지만 어떤 것이 정문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동사의 사용과 구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학기 말

문법성 판단 시험에서 옳게 수정할 비율이 높아진 것은 영어에 대한 능숙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의미가 된다. 특히, 1번과 3번 유형의 문장(NP NP 유형)에 대하여 틀리게 수정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졌다는 점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기 쉬운 구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가 된다. 구체적으로 수동구문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장 유형에서 학습자가 틀리게 고치는 비율이 학기 초에 비하여 학기말에 크게 낮아 졌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의 영어능력이 좋아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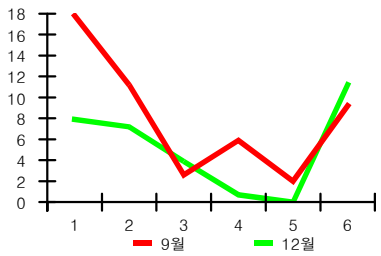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NP PP 유형(send, offer, buy, reserve 동사사용)을 틀리게 생각하고 대안적 구문인 V NP NP 유형을 정문이라고 옳게 답변한 학생들이 9월에는 2.0 %에 그치고 있지만 12월에는 5.9%로 늘은 반면, 틀린 답변을 한 학생은 9월에 15.1%에 이르렀으나 12월에는 11.2 %로 낮아 졌는데 이 것은 제 2유형의 구문에 대한 학생들의 능숙도가 높아 졌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각 유형별로 틀리게 수정한 답안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수정하였는지 논의하기로 하자.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틀리게 수정하는 비율은 9월에 비하여 12월에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다음 figure 1은 V NP NP (send, offer, buy, reserve 동사 사용) 경우를 비문이라고 생각한 경우, 어떻게 세부적으로 수정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세로축은 %를, 가로축의 숫자는 V NP NP(send 유형의 구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 형식을 대신하는 것이다:

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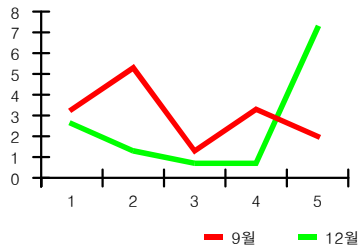
1. send to me a book
2. send a book for me
3. send for me a book
4. 수동태로 수정
5. 문장 재배열
6. 기타 답변들 (시제나 관사의 수정: 부록 4 참고)

결국 가로 축의 숫자는 비문이 되는 문장형식을 보여준다. 문장 재배열과 기타답변을 제외한 동사구와 전치사구의 활용에 대하여서는 학기 초에 비하여 학기 말에는 학생들이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 있음을 figure 1은 보여준다. 한 예로, 1번 유형의 경우 9월에 틀리게 수정한 학생들이 약 17.8%였으나 12월에는 7.9%에 불과하였다. 또한 문장을 재배열함으로서 비문을 형성하는 학생들이 9월에는 2%에 달하였으나 12월에는 0%였다. 특히, 전치사를 잘 못 사용하는 비문이나, 전치사구와 명사구의 위치를 바꾸

는 경우, 수동태 문장으로 잘못 전환시키는 경우가 9월에 비하여 12월에 현저하게 낮아졌다(틀리게 수정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9월의 48.7%에서 12월의 30.9%로 낮아짐)는 사실은 강의방법이나 내용, 과정 등이 학습자의 요구와 잘 맞아들어 발전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음 figure 2는 V NP PP(send, offer, buy, reserve 동사 사용 구문)의 경우 학생들이 비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다른 대안 구문인 NP NP 로 올바르게 고치는 경우가 9월에는 2.0%에 그치고 있으나 12월에는 5.9%로 세 배정도 증가하였고, 틀리게 수정하는 경우는 9월에는 15.1%에 달하였으나 12월에는 11.2%로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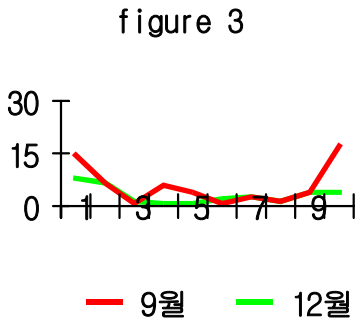
figure 2



1. send a book me
2. send a book for me
3. send to me a book
4. 수동태로 수정
5. 기타 (관사 첨가, 시제변화 등: 부록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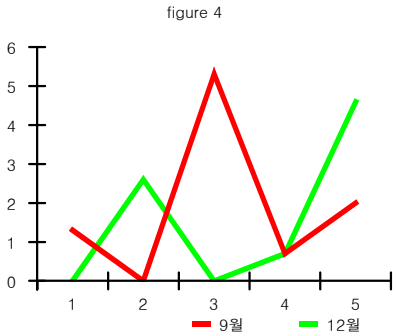
결국 9월의 결과에 비교하여 12월의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비문 생성 면에서 현저한 감소현상을 보여준다. NP와 NP의 순서를 잘 못 사용하는 경우도 9월에는 3.3%였으나 12월에는 2.6%로, 전치사를 잘 못 사용하는 경우도 9월에는 5.3%에서 12월의 1.3%로, 전치사구와 명사구의 위치를 바꾸어서 잘 못 사용하는 경우가 9월의 1.3%에서 12월의 0.7%로, 비문 수동 구문 사용의 경우도 9월의 3.3%에서 12월의 0.7%로 현저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것은 학생들의 영어 문법성 판단 능력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다음 figure 3은 V NP NP(report, explain, open, design등의 동사사용)구문을 학생들이 얼마나 옳게 사용하였는지를 보여준다.



1. explain to me it
2. explain it for me
3. explain for me it
4. explain her reason
5. 수동태
6. 앞 NP -> NP's
7. 뒤 NP -> PP
8. V PP PP
9. 문장 재 배열
10. 기타 (부록 4 참고)

동사 explain은 하위범주 규칙에 의하여 전치사구(전치사 to)만을 수반한다. 따라서 NP NP를 수반하는 경우 비문이다. 또한 1번과 3번에서 보듯이 동사 explain 다음에 전치사구와 명사구의 위치를 잘 못 사용하는 경우도 비문이다. V NP NP (report, explain, open, design)구문의 경우 옳게(explain it to me로) 수정하는 비율이 9월에 17%에서 12월에는 28.9%로 거의 11% 넘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잘 못 수정하는 경우 1번 유형의 경우는 14.5%에서 7.9%로, 2번 유형의 경우 별 변동이 없지만 3번 유형의 경우는 0.7%에서 1.3%로 오히려 나빠졌다. 그러나 4번 유형의 경우는 5.9%에서 0.7%로, 5번 유형의 경우는 3.9%에서 0.7%로 낮아졌고 기타 관사의 혼용이나 시제를 잘 못 사용하는 경우는 17.1%에서 3.9%로 낮아졌다. 전반적으로 1번 유형에서 10번 유형까지의 틀린 답변을 하는 비율이 9월에는 57.2%에서 12월에



1. V NP NP
2. explain it her
3. 수동태로 만듬
4. PP에서 전치사를 틀리게 고침
5. 기타 (부록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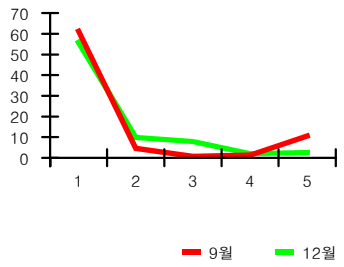
는 31.6%로 낮아졌다는 사실은 문법성 판단에 대한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동구문이나 관사혼용과 시제 혼용에서는 장족의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4는 V NP PP(report, explain, open, design) 구문으로 정문의 경우이다. 이 구문을 학생들이 잘 못 수정한 예는 다음의 5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먼저, V NP NP로 틀리게 수정한 비율이 9월에 1.3%였던 것이 12월에는 0.0%가 되었으며 2번 유형의 경우는 0%에서 2.6%로 오히려 상승하였지만 3번 유형의 경우는 5.3%에서 0.0%로 낮아졌음을 보인다. 전치사를 틀리게 고친 경우는 별 변동이 없었지만 기타에서는 2.0%가 4. 6%로 약 두 배 정도 상승하였다. 결국 틀리게 수정한 비율이 9.3%에서 7.9%로 낮아졌다. 결국, NP V NP PP 구문의 경우 V NP NP로 잘 못 수정하거나 수동구문으로 잘 못 만드는 경우는 없어졌지만 정확한 전치사의 사용과 정확한 수정에는 여전히 문제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수동문의 경우는 어떠한가? 제시된 수동문은 모두 비문으로 제시되었다. 제시된 수동구문이 비문이라고 생각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수동구문을 능동문으로 전환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The little girl was opened the door.을 The little girl opened the door.로 수정하였다. 이렇게 수정한 결과는 정문이지만 의미상의 차이가 있음으로 수정될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 figure 5는 수동구문을 틀리게 수정한 경우의 유형을 보여 준다:

figur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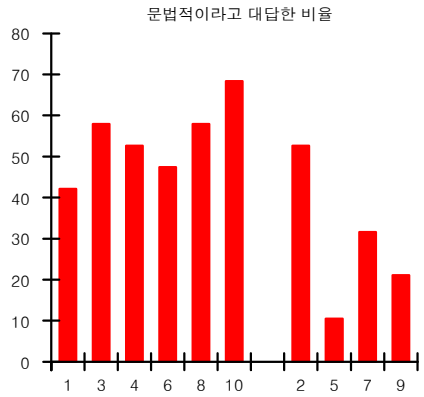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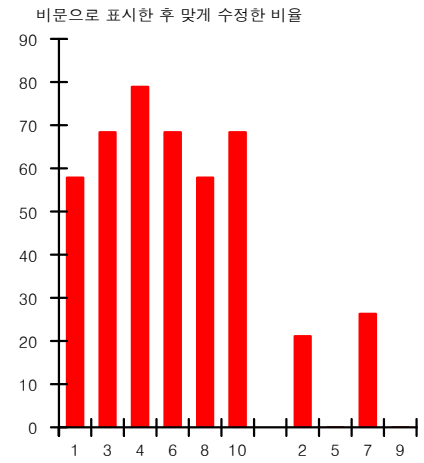
1. be 동사를 생략하고 능동 구문으로 전환
2. 수동태로 만드는 경우
3. 진행형으로 만드는 경우
4. 과거분사를 원형으로 만드는 경우
5. 기타 (부록 4 참고)

먼저, be 동사를 생략하고 능동구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의미상의 차이가 초래됨으로 틀리게 수정한 경우인데 9월에 62.1%에 달하였던 비율이 12월에는 55.9%로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수동구문에서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다른 식으로 수정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동구문을 다시 수동구문으로 수정하는 경우, 진행형을 만드는 경우, 과거분사를 원형으로 만드는 경우 모두 그 비율이 9월에 비하여 12월에는 높아졌다. 반면에 5번 유형으로 수정하는 비율은 10.5%

에서 2.6%로 낮아져서 결국 틀리게 수정하는 전체적인 비율은 78.3%로 9월과 12월에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학생들의 문법성 판단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문법성 판단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이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12월에 10개의 문장(부록3. Test 2)을 학생들에게 다시 제시하고 문법성 판단 여부를 적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제시한 문장은 8개의 동사가 다 포함되는 것으로 6개는 정문(1, 3, 4, 6, 8, 10)이고 4개는 비문(2, 5, 7, 9)이다. 정문의 경우, send, buy, reserve, offer 동사를 포함하는 NP NP 구문과 offer, reserve 동사를 포함한 NP PP 구문이다. 비문의 경우, explain, design 동사를 포함하는 NP NP 구문과 report, open 동사를 포함하는 수동문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옆 도표에서 2, 5, 7, 9는 실제로 비문이며 이중 5. 9번은 수동구문이다. 그런데 정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2>7>9>5의 순서로 높다. 나머지 6문장은 정문인데 정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3>8>4>6>1의 순서로 높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비문보다는 정문을 정문이라고 판단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번 (The teacher explained me the answer)의 경우는 비문인데도 불구하고 정문으로 판단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아마도 1번의 My wife sent me a letter 구문과 동일하게 생각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직접목적어 앞에 전치사 없이 대명사를 사용하는 규칙을 과대 일반화해서 2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 같다. 이러한 가정은 7번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비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어떻게 수정하겠는지 질문한 결과, 옳게 수정한 비율은 다음 도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원래 정문으로 제시된 문장의 경우(1, 3, 4, 6, 8, 10), 올바른 대안적 방법으로 수정하는 비율

이 높았던 반면에, 비문으로 제시된 문장의 경우(2, 5, 7, 9), 문법적으로 옳게 수정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음을 볼 수 있다. (2), (5), (7), (9)번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번과 (7)번의 경우는 V NP NP 로 제시되었으나, 실제로는 V NP PP만을 허용하는 구문이다. 앞서 9월에 실시한 실험에서는 17%정도만이 올바로 수정한 반면에, 이 실험에서는 평균 24%로 문법성 판단 능력이 신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1) 모국어 전이현상의 영향 (2)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모형을 통한 한 학기 동안의 교육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다. (5)번과 (9)번의 경우는 수동형의 문장이었는데, 학습자들이 수동형 문장을 특히 어렵게 느끼며 여전히 올바르게 수정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동 문장의 경우, 한 학기 동안의 단기 교육을 통해서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어렵다. 교사들은 장기간에 걸친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수동구문을 인지할 수 있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상의 문법성 판단 시험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자료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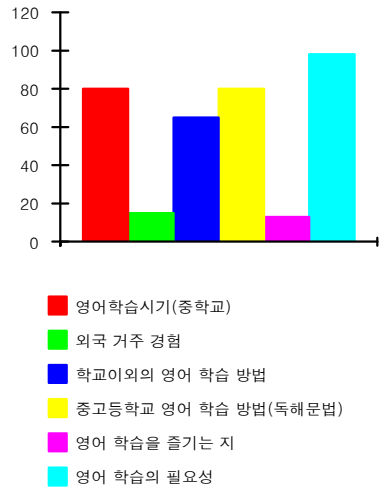
(1) 학생들이 문법적이라고 판단한 문장의 비율을 학기 초와 학기말을 비교하여 볼 때 약간의 변동(V NP NP: send, offer, buy, reserve와 report, explain, open, design동사)이 있지만 V NP PP 구문이나 수동문의 경우에는 별 변동이 없었다.
(2) 학생들이 비문이라고 판단한 문장을 수정하는 경우 학기 초에는 맞게 고치는 비율보다는 틀리게 고치는 비율이 높았으나 학기 말에는 그 반대로 맞게 고치는 비율이 틀리게 고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3) 학생들이 비문이라고 판단한 구문 중에서 V NP PP 구문보다 V NP NP 구문을 수정할 때 더 많은 발전을 보였다.
(4) 수동구문의 경우 학기 초와 학기 말을 비교할 때 별 진전이 없었다.
(5) 학생들은 비문보다는 정문에 대한 판단력이 높다.
(6) 학생들은 문법성 판단시험에서 모국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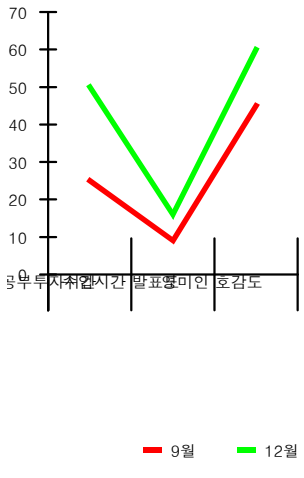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학기 초에 비하여 학기말에 실시한 문법성 판단 시험결과에서 비문을 수정하는데 틀리게 수정하는 비율이 줄었고 옳게 수정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영문의 이해*를 수강한 학생들이 수업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와세다 대학생들과의 상호작용 활동인 채팅을 통한 자기발전에 나름대로의 시간을 투자한 결과라고 본다. 다음에 논하는 학생들의 설문결과는 이러한 점을 지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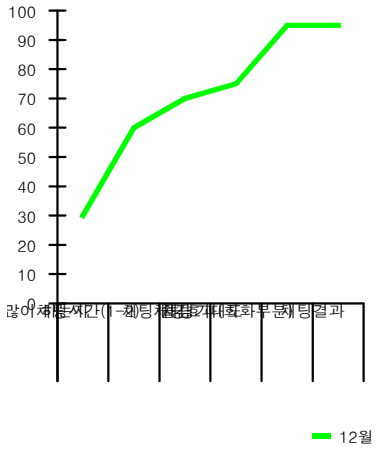
2. 학생들의 설문결과

학생들에게 제시된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영어학습과 연관되어 영어학습시기,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지, 학교교실수업이외에 학원이나 개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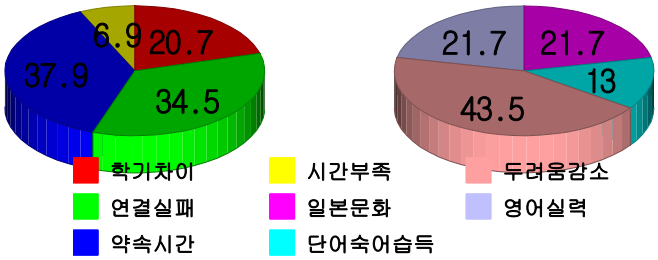
지, 어떤 방법으로 중. 고등학교에서 영어수업을 들었는지, 영어학습에 투자하는 시간, 영 미인에 대한 호감도, 영어수업시간의 발표여부, 영어학습을 얼마나 즐기면서 하는지, 영어기능면에서 어렵다고 느끼는 기능과 실제로 부족한 기능이 무엇인지, 얼마나 다양한 세계영어를 접하여 보았는지, 그리고 채팅에 관련되어 채팅에 투자하는 시간과 채팅을 얼마나 즐기면서 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포함한다. 9월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습자들의 80%는 중학교 때 영어 학습을 시작했고, 대부분의 영어 학습은 독해나 문법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들 중 98%가 영어 학습의 필요성을 절실히는 느끼고 있으나, 13%만이 영어학습을 즐기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피험자 중 15%의 학생만이 외국 거주 경험이 있다고 답함으로써, 실제적인 외국 문화권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부족함을 살펴볼 수 있다. 채팅을 시작하기 전과 채팅을 하고 난 후의 설문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1) 영어시간에 발표하는데 더 적극적이 되고, (2)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었으며, (3) 채팅을 즐기게 되어 채팅시간이 기다려진다는 점, (4) 채팅 후 영어공부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고, (5) 채팅에 투자하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6) 채팅이 영어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7) 쓰기와 읽기가 부족하여 더 정진하여야 하고, 그리고 (8) 영. 미인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하였다는 점이었다. 다음 그림은 채팅 전. 후의 변화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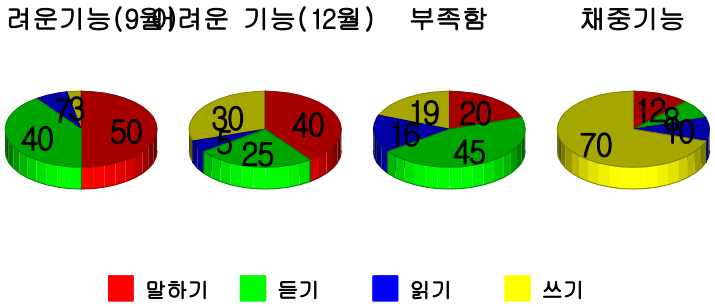
채팅문제점 **채팅으로 얻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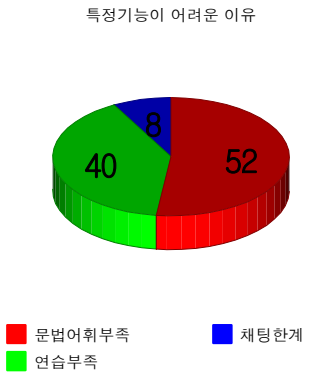


채팅의 문제점으로는 상대방과의 연결실패와 상대방이 약속시간을 어기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지적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채팅경험 후에 영어로 말하고 의사소통하는데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었고 외국어와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점이다. 또한 학교수업시간에 발표를 많이 하게 되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영어학습에 임하게 되었고, 영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어, 그 결과 채팅시간이 기다려지고 채팅을 즐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채팅을 하기 전에 수강생들이 어렵게 느꼈던 영어기능의 순서는 말하기 -> 듣기 -> 읽기, 쓰기 순서이었으나 채팅 후에는 말하기-> 쓰기 -> 듣기-> 읽기의 순서로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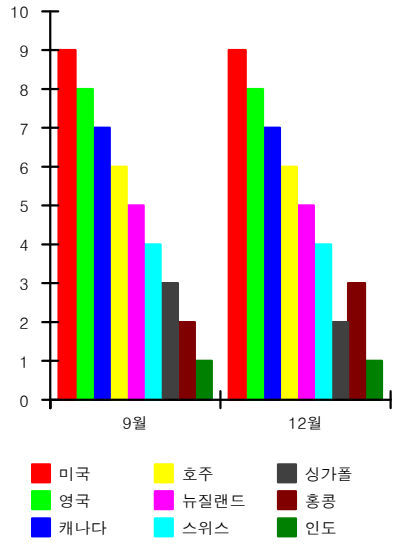
되었다는 점이다. 말하기는 채팅하기 전이나 후에나 모두 어렵게 느끼는 기능이지만 채팅 전에 비하여 후에는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이 약 10% 줄었다는 점은 채팅의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채팅 전에는 쓰기를 그렇게 어렵게 인식하지 못했으나, 12월에는 쓰기를 어려워하는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문자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채팅의 한 양상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채팅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할 때, 전달내용을 먼저 머리에 넣고 문자로 전달해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쓰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곧 학생들이 잘하는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정 영어기능이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으로는 채팅 전, 후 모두 연습부족과 문법. 어휘부족 때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채팅은 학생들에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주고 문법과 어휘력을 키우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음 학기 채팅주제로 학생들이 제시한 내용은 동양 문화사, 한일관계, 한일 역사, 일본과 한국의 학습실태, 한일 대학문화, 북한 핵문제, 월드컵, 미국에 관하여 등 다양한데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영어시간에 다룰 내용을 영미문화권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와 파트너의 나라인 일본에 연관된 내용에 연관된 주제가 많다는 점이다. 아마도 요즈음 젊은 학생들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모국에 대한 문화와 역사 등을 먼저 이웃에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강한 것 같다. 먼저 자신과 자신에 관련된 가까운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 같다. 먼저 우리 것을 자세히 알고는 외국에 전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영미권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바른 자세라는 생각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세계영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견해이다. 설문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싱가폴, 홍콩, 인도, 스위스 영어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고 온당한 세계영어라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보도록 하는 실험을 실시해 본 결과, 학습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미국 영어와 영국영어를 비중 있게 생각하는 반면, 싱가폴, 홍콩, 인도 영어의 경우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즉, 아무리 세계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도 아직까지는 서구 문화권에서 사용되는 영어를 선호하고, 절대시하는 반면에,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아시아권에서 사용되고 있는 영어에 대해서는 편견을 가지고 학생들이 바라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점점 다양해져가는 21세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영어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Ⅴ. 결 론

이 연구의 전제로 우리는 (1) 의사소통욕구가 언어발달을 촉진시키며, (2)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학습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며, (3) 언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학습자가 생각하는 경우 비언어적 방법을 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NNS간의 상호작용이 영어습득/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NNS(한국과 일본 학생간의)실제 채팅자료와 설문지, 그리고 문법성 판단에 관한 사전, 사후 시험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었다.

강원대학교 영문의 이해 강좌를 수강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간의 계획된 수업내용과 진행 절차 그리고 와세다 대학생과의 채팅을 통한 동기유발과 학생중심의 수업을 실시하기 전·후에 실시된 문법성 판단 시험과 설문조사결과 학기 말에는 학기 초에 비하여 학생들의 학습동기, 열의, 자신감, 필요성, 그리고 영어 문법성 판단에서 많은 발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비 원어민 화자간의 상호작용이 영어성취도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았다. 약 3~4개월간의 의사소통욕구를 조성하는 교실수업과 비 원어민 화자간의 상호작용 채팅을 통하여 학습자의 문법성 판단 시험결과가 매우 상승하였다는 점과 영어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동기유발과 흥미도, 만족도, 자신감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영어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상호작용을 통한 동기유발과 자신감, 만족감이며 교실수업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수업모형에 따라서 학습자들의 잠재력을 개발시켜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임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학습자들의 문법성 판단 지식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어떤 문장이 비문이라는 사실을 막연히 알고는 있었으나 그 원인을 확실히 옳게 알고 있지 못하여 주관적 문법성 판단시험에서 문제점을 보여준 학습자들이 학습자 상호작용 중심의 수업모형을 한 학기동안 받은 결과 비문이 되는 문장의 원인을 확실히 알아서 정확한 문장으로 고쳐 쓸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사실은 수업모형과 비 원어민간의 상호작용이 문법성 판단 시험- 결과적으로 학습자의 영어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어 교실수업에서 학습자 중심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교실수업은 학습자의 언어발달을 촉진시킨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은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단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하려고 최대의 노력을 한다. 따라서, 비원어민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채팅)은 원어민 대 비원어민간의 상호작용 못지않게 언어발달에 중요한 촉진제가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언어적으로 상호작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특정한 전략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을 유지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비언어적 방법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화제를 바꾸는 등의 특정 전략을 사용한다.

참 고 문 헌

박경자. (1997). *언어습득연구방법론*. 고대출판부.

박경자 외. (2001). *응용언어학사전*. 경진문화사.

Braidi, S. (1992) Issues in input: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analyzing second language input. In D. Staub & C. Delk (Eds.), *Proceedings of the Twelfth*

Second Language Research Forum(pp. 335-336). East Lansing: Michigan State University, Department of Linguistics.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Ellis, R. (1991). Grammaticality judgments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3: 161-86.

Gardner, R. C. & W.E. Lambert. (1972). *Attitudes and motivation in second-language learning*. Rowley: Newbury House.

Gass, S. M. (1997). *Input, interaction, and the second language learner*. Hillsdale, NJ: Erlbaum.

Krashen, S.D. (1981).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Oxford: Pergamon.

_____. (1982). *Principles and practic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_____. (1985). *The input hypothesis: issues and implications*. London: Longman.

Long, M. (1980). *Input, interaction,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_____. (1981). Questions in foreigner talk discourse. *Language Learning*, 31(1), 135-157.

_____. (1983) Native speaker/non-native speaker conversation and the negotiation of comprehensible input. *Applied Linguistics*, 4(2), 126-141.

_____. (1990). Task, group, and task-group interactions. In S. Anivan (Ed.), *Language teaching methodology for the nineties*(pp. 31-50). Singapore: RELC/Singapore University Press.

_____. (1996).The role of the linguistic environmen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Ritchie, W & Bhatia, T.(Eds),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413-468). Academic Press.

Nobuko, O. (2001). What strategy do less proficient learners employ in listening comprehension? A reappraisal of bottom-up and top-down processing, *Journal of PAAL* 5(1), 73-90.

Poulisse, N. (1997). Compensatory strategies and the principles of clarity and economy. In Kasper, G. & Kellerman, E. (Eds). *Communication strategies* (49-64). Longman.

Sohn, Ho-min. (1986). *Linguistic expeditions*. Seoul: Hanshin Publishing.

Sinclair, J. M., & Coulthard, R.M. (1975). *Towards an analysis of discourse: The English used by teachers and pupils*.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Snow, C. (1993). Learning from input in L1 and L2. In J. Alatis(Ed.), *Georgetown University Roundtable on Languages and Linguistics 1993* (pp. 23-35).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Swain, M. (1985). Communicative competence: Some roles of comprehensible input and comprehensible output in its development, In S. Gass & C. Madden (Eds.), *Input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Rowley, Mass.: Newbury House.

Wagner, J., & Firth, A. (1997). Communication strategies at work. In Kasper, G. & Kellerman, E. (Eds). *Communication strategies*(323-344). Longman.

Wilkes-Gibbs, D. (1997). Studying language use as collaboration. In Kasper, G. & Kellerman, E. (Eds). *Communication strategies*(238-274). Longman.

Williams, J. (1992). Planning, discourse marking and the comprehensibility of international teaching assistants. *TESOL Quarterly*, 26(4), 693-711.

Williams, J., Inscoe, R., & Tasker, T. (1997). Communication strategies in an interactional context: the mutual achievement of comprehension. In Kasper, G. & Kellerman, E. (Eds). *Communication strategies*(304-322). Longman.

Yule, G., & Tarone, E. (1997). Investigating communication strategies in L2 reference: pros and cons. In Kasper, G. & Kellerman, E. (Eds). *Communication strategies*(17-30). Longman.

부록 1. 강의계획표

2002학년도 제 2학기 강의계획표

과목명: 영문의 이해 강사: 박경자

강의시간: 화요일 10~12시 (2시간)

강의내용:

영문의 이해는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1) 선택된 영어 텍스트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독해와 더불어 말하기, 쓰기도 함께 한다.

(2) 와세다 대학교 학생들과의 chatting을 통하여 주어진 주제에 대한 토의능력을 기른다.

교재: 시간 중 프린트 물 배부

강의진도:

2002. 08. 27 ~ 2002. 09. 03 강의내용, 진도, 및 강의방식과 평가에 대한 소개(pretest)

2002. 09. 10 Marketers tout kim chee as the next salsa (Star Bulletin, August 19, 2001)
각자 조사해온 김치관련보고사항이나 재미있는 일화이야기하기
독해할 selection의 내용토의하기
어려운 단어 및 표현 토의
독해
Questionnaire

2002. 09. 17 지난주의 selection 나머지 부분 독해완료
독해한 selection에 대한 질의응답
기타 논의사항: 질문 만들어 적기와 답하기
와세다대학교 학생들과의 chatting 위한 orientation 시작
text chatting포함

2002. 09. 24 How to sell in Korea? Marketers count the ways.
각자 조사해온 새로운 광고형태와 방식, 재미있는 일화이야기
독해할 selection 내용토의하기
어려운 단어 및 표현 토의
독해
질의응답과 질문 만들어 적기와 답하기
와세다대학교 학생들과의 chatting 위한 orientation 계속

2002. 10. 1 A Long trip to school: Why parents are enrolling kids abroad. (Business Week, August 27, 2001)
각자 조사해온 조기유학교육에 대한 정보와 주변의 이야기

독해할 selection 내용토의하기
어려운 단어 및 표현 토의
독해
질의응답과 질문 만들어 적기와 답하기
와세다대학교 학생들과의 chatting 주제 제시

2002. 10. 8 지난주 독해 나머지 부분 독해완료
독해한 selection에 대한 질의응답
질문 만들어 적기와 답하기
기타 토의사항
**** 와세다대학교 학생들과 chatting 시작**

2002. 10. 15 Japan student breaks the mold(Honolulu Star-Bulletin. Sunday, August 25, 2002)
각자 조사해온 영어교육의 문제점, 재미있는 일화이야기
독해할 selection 내용토의하기
어려운 단어 및 표현 토의
독해
질의응답과 질문 만들어 적기와 답하기
와세다대학교 학생들과의 chatting 계속

2002. 10. 22 중간고사
와세다대학교 학생들과의 chatting 계속

2002. 10. 29 Schools struggling to educate more immigrant children
(The Honolulu Advertiser. Monday, August 27, 2002)
각자 조사해온 이민생활과 교육의 문제점 또는 일화이야기
독해할 selection 내용토의하기
어려운 단어 및 표현 토의
독해
질의응답과 질문 만들어 적기와 답하기
와세다대학교 학생들과의 chatting 계속

2002. 11. 5 Is language learned or inherited?
(Korea Herald, Friday, June 21, 1991)
각자 조사해온 언어습득이론 및 방법 또는 영어습득에서의 일화
독해할 selection 내용토의하기
어려운 단어 및 표현 토의
독해
질의응답과 질문 만들어 적기와 답하기
와세다대학교 학생들과의 chatting 계속

2002. 11. 12 The meanings of words should not be allowed to vary or change (from Language Myths edited by Laurie Bauer & Peter Trudgill, 1998)
언어변화에 대해 각자 조사해온 내용 또는 일화소개
독해할 selection 내용토의하기
어려운 단어 및 표현 토의
독해
질의응답과 질문 만들어 적기와 답하기
와세다대학교 학생들과의 chatting 계속

2002. 11. 19 지난 시간의 나머지 부분 독해
질의응답과 질문 만들어 적기와 답하기
와세다대학교 학생들과의 chatting 계속

2002. 11. 26 Seminar debates gap between Western, Korean biz cultures(ms.)
우리나라와 서양의 business cultures 에 대한 자료수집 및 일화
독해할 selection 내용토의하기
어려운 단어 및 표현 토의
독해
질의응답과 질문 만들어 적기와 답하기
와세다대학교 학생들과의 chatting 계속

2002. 12. 3 지난 시간의 나머지 부분 독해
질의응답과 질문 만들어 적기와 답하기
와세다대학교 학생들과의 chatting 계속

2002. 12. 10 **기말고사 (post-test)**

2002. 12. 17 **와세다대학교 학생들과의 chatting 결과자료 및 소견서 제출**

평가

1. **출석과 토의참가(조사해온 것 발표하기 포함), 도움주기 : 30**
2. **와세다대학교학생들과의 chatting결과(적어도 7회 이상)및 소견서 제출 그리고 도움주기: 30**
3.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 30**
4. **기타 : 10**

***** 위의 강의 계획진도는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TA

영문의 이해 담당 조교선생님은 다음사항을 유념하여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I. 수업시간관련
(1) 매 시간 후에 그 시간의 발표 활동을 기록하여 디스켓에 저장
(2) 수업시간에서 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영문표현이나 문제점을 기록 저장
(3) 출/결 점검
(4) pretest 자료 정리(기준에 관하여서는 참고 물 참조바람)
(5) 중간. 기말시험 및 성적정리

II. 와세다대학생들과의 chatting관련사항
(1) chatting은 모든 학생들이 최소 7번 정도
(2) orientation
(3) 와세다대학교 학생들과의 chatting 자료 점검 및 기록
(4) chatting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점검 및 기록
***
chatting 자료 정리 기준에 도움이 되는 요소:
(1) 문장/어휘 종류 및 빈도 수
(2) 품사별로 종류/유형 및 빈도 수
(3)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4)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5)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문장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6) chatting 시작과 마무리에 사용되는 표현
(7) 기타 본인이 흥미 있게 생각되거나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범하는 오류 등

Chatting Schedule
I. September 17 - September 24
Orientation: 10 - 20 minutes (TA)
II. September 30 - October 15 (2 weeks)
Weekly sessions 30 minute per student, plus online report Midterm project: 5 minute class presentation introducing Waseda partner
III. October 16 - December 13 (8 weeks)
Weekly sessions 30 minute per student, plus online report Final exam grade based on number of sessions completed, class participation, mid-term and final exams. Waseda contact: Prof. Nakano

부록 2. 학습자 배경에 관한 설문지

본 설문은 여러분들의 영어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설문의 내용은 성적과는 무관하며 순수하게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_____ 학번 _____ 전공 _____ 성별 _____ 연령 _____ 세

아래의 각 문항을 잘 읽고 성실히 답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영어학습을 처음으로 시작한 시기는 언제 입니까?
   (1) 초등학교 _____
   (2) 중학교 _____
   (3) 고등학교 _____
   (4) 유치원 _____
   (5) 기타 :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_____
2.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이며 얼마동안 거주하였습니까?
   (1) 아니오 _____
   (2) 네 _____
   거주한 국가 명: _____
   언제: _____
   기간: _____년 _____월부터 _____년 _____월까지
3. 학교수업이외에 영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떻게 하였는지 자세히 적으십시오.
   (1) 아니오 _____
   (2) 네 _____
   언제 _____
   어디서 _____
   어떻게 _____
4. 중·고등 학교수업에서의 영어학습은 주로 독해위주였습니까?
   (1) 네 _____
   (2) 아니오 _____
   어떤 기능을 위주로 한 수업이었습니까?
   말하기 _____ 듣기 _____ 쓰기 _____ 복합적인 기능위주 _____

5. 본인은 영어학습을 즐기는 편입니까?
   (1) 네 _____
   (2) 아니오 _____
   (3) 그저 그렇다 _____
6. 영어학습을 즐긴다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를 영어학습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_____ 시간
7. 영어시간이 기다려집니까?
   (1) 네 _____
   왜 영어시간이 기다려 집니까? _____
   (2) 아니오 ____
   왜 영어시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_____
8. 영어수업시간에 발표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1) 네 ____
   수업시간에 발표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2) 아니오 ____
   왜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지 않게 됩니까?
   _____
9. 영국인이나 미국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아니오 ___
   어떤 점에서 호감이 안 갑니까?
   _____
   (2) 네 ____
   어떤 점에 호감이 갑니까?
   _____
10. 영국소설이나 미국소설(단편, 동화 포함)을 원서로 읽은 경험이 있습니까?
   (1) 네 _____
   어떤 작품을 읽어보았습니까? 읽어본 작품제목과 저자의 이름을 아는대로 적어보세요.
   _____
   (2) 아니오 _____
   왜 한번도 원서로 읽지 않았는지요?
   _____
11. 영어학습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네 _____
   왜 영어학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_____

(2) 아니오 _____

왜 영어학습을 안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_____

12. 영어학습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정도에 따라서 순서를 적어주세요.

(1) 영어 듣기 _____

(2) 영어 말하기 _____

(3) 영어 읽기 _____

(4) 영어 쓰기 _____

(5) 이상의 4가지 기능 모두 _____

13. 위의 12.에서 지적한 특정기능이 어렵게 느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_____

14. 하루에 어느 정도 시간을 영어학습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_____시간

15. 본인의 영어학습에서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어떤 것입니까?

_____

16. 부모님께서 영어잡지나 영어 책을 주로 읽고 계십니까?

(1) 네 ____

어떤 책을 주로 보십니까?

_____

(2) 아니오 _____

17. 형이나 누나 또는 동생이 있습니까?

(1) 네 ____

집안에서 몇 번째입니까?

맏아들/딸,

둘째아들/딸

기타 _____

(2) 아니오 _____

외아들/딸

18. 형이나 누나 또는 동생이 있는 경우 그들도 영어학습을 좋아합니까?

(1) 네 _____

형제, 자매들이 영어의 어떤 기능에 특히 관심이 많습니까?

관심도에 따라 순서를 적어주세요.

듣기 ____

말하기 ____

읽기 _____
쓰기 _____
(2) 아니오 ____
(3) 잘 모른다 ____

19. ***영문의 이해***를 과거에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까?
(1) 네 ___
언제입니까? _____년도
다시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2) 아니오
지금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20. 영어관련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면, 어떤 과목을 언제 수강했습니까?
_____
그 과목이 재미있고 유익하였습니까? _____
어떤 면에서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생각하였습니까?
_____

21. 여러분은 자신의 영어능력을 어느 정도라고 평가합니까?

영어말하기	아주 못함	1	2	3	4	5 아주 잘함
영어 듣기		1	2	3	4	5
영어 읽기		1	2	3	4	5
영어 쓰기		1	2	3	4	5

22. 영어이외의 어떤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까?
_____

23. 영어이외의 다른 외국어를 학습하고자 한다면 어떤 외국어를 학습하고 싶습니까?
_____

24. 영어 원어민 화자 친구가 있습니까?
(1) 네 _____
있다면 몇 명이나 있으며 어떻게 알게되었습니까?
_____
(2) 아니오 _____

25. 영어학습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_____

26. 왜 영어를 학습하려고 합니까?
_____

27. 아래 열거한 다양한 영어를 가장 일류에서부터 제일 하류인 것까지 순서를 매겨보세요.
    American English ____
    Australian English _____
    British English _____
    Canadian English _____
    Indian English _____
    New Zealand English _____
    Singaporean English _____
    Honkong English _____
    Swiss English _____
28. 위에 열거한 다양한 영어 중에서 여러분이 전혀 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_____

여러분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3. 문법성판단에 관한 40문항

1. 성별 M ( ) F ( )
2. 연령 _____ 학년 _____
3. 학과(전공) _____
4. 고향 _____
5. 영어를 학습한 경험 _____ 년 _____ 개월
6. 이름 _____

TEST

이 시험의 목적은 영어습득에 관한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영어교수를 하기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험의 결과는 어떤 식으로든지 공개되지 않을 것이며 이 시험에 참가한 여러분에게는 응당하는 보상(교실수업에서 이야기 한 대로 일정 점수가산)을 해 드릴 것입니다. 부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앞으로의 영어교육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1- 40번까지)을 읽고 **비문법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장 옆 ( ) 내에는 **X 표시**를, **문법적인 문장**이라고 생각되는 문장 옆 ( )내에는 **V 표**시를, 그리고 **확신이 가지 않는 문장** 옆 ( ) 내에는 **? 표시**를 해주세요.

비문법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장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고쳐서 ____ 내에 적어 주세요. 친구와 상의하거나 문법책을 참고하지말고 혼자 작성하여 주세요.

1. My wife sent me a letter ( )
2. The president offered him a job. (_)
3. The policeman reported me the accident. ( )
4. The teacher explained me the answer. ( )
5. My mother bought me a shirt. ( )
6. The manager reserved me a seat. ( )
7. Mr. Smith opened her the door. ( )
8. Mrs. Jones designed her a dress. ( )
9. She was reported the accident. ( )
10. He was explained the problem. ( )
11. He was opened the window. ( )
12. She was designed a house. ( )
13. The shop sent my wife the dress. ( )
14. The committee offered my brother a gift. ( )
15. The bank reported the police the accident. ( )
16. The council explained the public the decision. ( )
17. The government bought its ministers new cars. ( )
18.. The school reserved Mr. Smith's son a place. ( )
19. The bank opened my son an account. ( )
20. The factory designed the manager a new car. ( )
21. The police were reported the robbery. ( )
22. The people were explained the difficulty. ( )
23. The little girl was opened the door. ( )
24. My girl friend was designed a trouser suit. ( )
25. She sent the flowers to her brother. ( )
26. He offered some money to my friend. ( )
27. She reported his absence to her boss. ( )
28. He explained the problem to his friend. ( )
29. He bought a bicycle for his son. ( )
30. She reserved a place in the queue for her friend. ( )

31. He opened the window for his father. ( )
32. She designed a new house for her mother. ( )
33. He sent the money to me. ( )
34. She offered a piece of cake to him. ( )
35. He reported the accident to her. ( )
36. She explained the story to him. ( )
37. He bought a new dress for her. ( )
38. She reserved a car for him. ( )
39. He opened the bottle for her. ( )
40. She designed the coat for him. ( )

TEST 2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연구를 위하여 다음 10문제를 읽고 **비문법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장 옆에는 **X 표**시를 **문법적인 문장 옆에는 V 표시**를, 그리고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문장 옆에는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문법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장아래 밑줄 친 부분에 그 **문장을 수정하여 문법적이라고 생각되는 문장**으로 적어주세요.

1. My wife sent me a letter. ( )
2. The teacher explained me the answer. ( )
3. The government bought its ministers new cars. ( )
4. The manager reserved me a seat. ( )
5. She was reported the accident. ( )
6. The committee offered my brother a gift. ( )
7. The factory designed the manager a new car. ( )
8. He offered some money to my friend. ( )
9. The little girl was opened the door. ( )
10. She reserved a car for him. ( )

부록 4. 기타 답변의 종류

1. NP NP(1): send, offer, buy, reserve
2. NP PP(1): send, offer, buy, reserve
3. NP NP(2): report, explain, open, design
4. NP PP(2): report, explain, open, design

5. 수동구문

	9월	12월
NPNP (1)	무응답, 관사/대명사 고침, 뒤 NP생략, 수동화함	시제/관사 고침, 소유대명사 생략
NPNP (2)	무응답	단수N을 복수로, 관사고침
NPPP (1)	무응답, 앞NP생략, 관사고침, 수동화함, 대명사를 재귀대명사로 고침	단수 N을 복수로, 관사고침
NPPP (2)	무응답	관사/시제고침, 무응답
수동구문	무응답,명사를 형용사로 고침, 시제/수 고침, 동사를 형용사로 고침	관사/일치고침, 능동구문으로 고침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education

박 경 자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번지
Tel: (02) 3290-1984
E-mail: kukjpark@korea.ac.kr

Received in May, 2003
Reviewed in June, 2003
Revised version received in July, 2003